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적 특성 평가에 기초한 보육의 질 제고*

A Study on the Qualities of Infant Day-Care Centers and Caregiver's Interactions with Infants*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분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숙령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권민균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Chung, Ock-Bo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Seok-Ryo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i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 Kwon, Myn-gyun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qualities of infant day-care centers and the caregivers' interactions with infants. Forty-six day-care centers from Seoul, Daejeon, and Daegu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wo kinds of metho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one was the Assessment Scale for Infant/Toddler Care Center developed by Choi and the other was the Qualitative Rating Scale for Caregiver used in the

Corresponding Author: Myn-gyun Kw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1000 sindang-dong, Daegu 704-701, Korea Tel: 82-53-580-5867 E-mail: kmyn@kmu.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2-C00104).

NICHD Early Child Care Project. Frequency, percentile, Cronbach's ,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calculated for data analysis. Qualities on 5 factors of infant day-care centers were ranged from 3.44~4.35, the highest with health managing and the lowest with support system in the Likert 5-point scales. Sensitivity, developmental stimulation and positive regard to child, which are the caregiver's positive interactions with infants were rated minimally or usually characteristic. In addition, intrusiveness, detachment, negative regard to child and flatness, which are negative interactions with infants were rated never or minimally characteristic. Finally, some suggestions for good quality and facilitation of infant care were made.

주제어(Key Words): 보육의 질(qualities of infant day-care), 보육규정(child care regulations), 보육교사 상호작용(caregiver's interactions)

I. 서론

우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낳았다. 조부모·친척과 동거하는 세대수보다 두 세대만이 동거하는 핵가족이 더 많아 2000년 현재 한국의 평균가족 수는 3.1명이며, 세대구성은 2세대 동거가족이 72.9%인 반면, 3세대 동거가족은 9.9%이다(통계청). 또한 경제난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나 한국의 이혼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에 이어 3위이다. 특히 이혼부부 10쌍 중 7쌍이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의 학력증가, 자아실현 욕구와 상대적 빈곤감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은 여성인력 확보에 달려있어 여성의 사회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녀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2001년 현재 전국 2만97개 시설에서 73만4천192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이는 전체 보육 수요에 대한 54.6%의 충족으로 1998년에 38.6%의 보육율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보육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는 만 2세 이하의 영아보육 충족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극히 낮다는 점이다(0-1세의 보육 충족률: 14.2%, 2세: 56.8%, 3-5세: 78.0%).

영아보육 충족률이 낮은 이유로서, 영아의 발달적 특수성으로 인한 시설투자 및 확보, 높은 인건비, 개별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영아보육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아보육 운영이 기피되고 있는 구체적 배경과 실태라든지, 나아가 전국의 지역별 영아보육 운영 실태나 질적 수준을 파악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높은 영아 대리양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리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와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민간 및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3~4배가 비싼 고가의 보육비를 지불하며 개인 탁아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영아의 발달 특성상 일대일의 보살핌이 가능하며 취업도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용자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탁아모의 학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전문적 훈련이 미비하고, 개인 탁아모를 구하는데 있어서 조직적이고 신용 있는 알선 기관이 없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러한 비체계적인 상황으로 인한 탁아모의 빈번한 교체는 부모에게 커다란 고통이 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고자 하는 경우, 영아를 위한 시설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지방의 경우는 더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국공립보육시설보다 가정보육시설이 일반 부모에게 쉽게 근접할지라도 보육환경의 질에 대한 회의와 교사 1명당 많은 영아의 수, 그리고 체계적 교육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선택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형편이다(김승권, 2000).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이 단순 보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표갑수, 2002), 이순형(1998)에 의하면 영아기 프로그램은 영양을 제외하고 건강과 안전, 학습환경구성, 개별화 영역 등에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전담 보육서비스의 보육 프로그램과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복희, 이옥, 이진숙, 한유미, 2003).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물리적 실태를 비롯하여 시설에서 보육되는 영아의 활동과 일상의 삶, 즉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주장해 온 결과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선행연구들은 대리양육과 집단양육이 어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보육의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Howes & Hamilton, 1993), 우수한 질의 보육시설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일상경험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Zaslow, 1991). 보육시설의 전체적 수준의 정도, 집단 크기와 교사의 높은 능력은 아동의 언어발달, 긍정적 사회성 발달, 발달된 학습준비도와 관계가 있으며(McCartney, 1984; McCartney et al., 1982), 우수한 질의 보육시설에서 아동은 교사와 일대일의 상호작용이 많았으며 교사는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풍부한 정보와 사회적 자극을 주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소수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에게 동일하였다. 반면에, 낮은 수준의 보육시설, 높은 교사 이직율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아동은 성인의 요구에 저항하며 자아조절능력이 떨어졌다(Howes & Olenick, 1986; Whitebook et al., 1989).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경험할 경우의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환경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엄마에게는 불안정적 애착관계를 갖고 있으나 보육교사에게 안정적 애착을 갖는 아동은 엄마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불안정적 애착을 갖는 아동보다 정서적,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유능하다. 또

한 물리적, 인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보육환경은 가정의 결핍된 환경을 보상하여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보여주는 지적능력 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Howes, Rodning, Galluzzo, & Myers, 198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보육시설의 질과 보육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아를 초점으로 하여 영아들이 보육시설에서 겪는 일상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atch, 1995). 국내에서도 현재까지의 보육 관련 연구는 만 3세 이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활동이나 방과후 아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아기 보육에 대한 미비한 학문적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영아 보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충청권(대전), 그리고 영남권(대구)의 세 곳을 통해 전국의 영아보육 실태를 알아보되, 영아보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함께 영아보육의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고 나아가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보육시설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성인과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 보육 상황에서 표출되는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과 정서성, 사회성, 그리고 영아보육교사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영아보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영아보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 신뢰와 만족을 위한 영아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보육교사와 운영자에 대한 지침을 비롯하여 영아보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봄으로써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증진에 기여하는 작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영아보육의 규정적(regulatable) 특성의 전반적 실태는 어떠한가?

2. 한국 영아보육의 질적 특성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2-1) 자체평가에 의한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의 영역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2-2) 관찰 평가에 의한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의 요인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한국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1) 자체평가에 의한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2) 관찰 평가에 의한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보육시설 명부를 사용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5개소씩 안배하여 총 90개소(3지역×2개구·동×3유형×5개소)가 표집되었다. 그 다음 2차로, 선정된 시설들 중에서 참여관찰을 수락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다시 유형별로 2개소씩 무작위로 표집하여 최종 36개소(3지역×2개구·동×3유형×2)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과정에서 교사-영아의 상호작용 평정에는 참여하였으나 자체 평가지 작성에 있어서 원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설 1곳이 있어서 시설 평가에는 최종 45개 시설의 자료가 분석되었고,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의 질적 평정에는 46개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아보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아전담시설과 일반보육시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아전담시설은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전국 총 75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에 영아전담시설로 등재된 보육시설 중 서울·대구·대전지역의 10개 영아전담시설을 무선 표집하였다.

일반 보육시설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유층표집에 의해 1차 연구대상을 선정한 뒤, 이 중 참여관찰을 수락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시 무선 표집 방법에 의해 최종 연구대상 시설을 선정하였다. 이는 1차로 서울·대전·대구 지역에서 각각 2개의 구·동을 무선 표집한 후, 해당지역에 소재한

2. 조사도구

1) 영아보육시설 자체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보육시설의 규정적 실태파악과 평가를 위해 최경애(2002)가 개발한 영아 보육시설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영아보육시설의 규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아보육 인가 학급 수, 실제 운영 학급 수, 교사 수 및 교원 경력 등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부분이다. 둘째로 영아 보육시설의 평가를 위한 부분이다. 이는 5점 척도로(1점, 매우 부족~5점, 매우 우수) 평가하게 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15문항), 보육과정(15문항), 건강관리(15문항), 운영관리(10문항), 지원체계(5문항)의 5개 하위영역에 걸쳐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영역에는 보육실, 실외놀이 및 대근육시설, 일상생활시설, 교직원업무시설, 설비 및 기타시설의 5개의 소영역이 포함되며 보육과정영역에는 보육목적·보육계획·평가, 일과운영, 보육내용, 교사-영아상호작용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관리 영역에는 영양관리, 약품·질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긴급사태관리·건강교육이 포함되며, 운영관리영역에는 운영 및 평가체계, 사무 및 재정관리, 종사자관리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체계영역에는 가족 서비스와 사회적 협력의 두 소영역이 포함된다. 본

〈표 1〉 조사대상 시설의 지역 별 분포(명)

지역	서울	대전	대구	합계
시설 종류				
일반보육시설	12	12	12	36
영아전담	5	3	2	10
합계	17	15	14	46

도구의 평가는 영아보육 시설의 원장 혹은 주임교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최경애(2002)의 연구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Cronbach $\alpha=.83\sim.93$ 이상의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영역별 문항간 신뢰도는 Cronbach $\alpha=.82\sim.92$ 로 높은 수치였다.

2) 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관찰평가

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 평가의 준거는 NICHD(1992)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 평가 매뉴얼 중 교사의 행동 평정에 근거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행동을 8가지 영역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영아가 무엇인가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낼 때 이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sensitivity to distress), 영아가 혼자 만족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교사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반응성(sensitivity to nondistress), 과도하게 교사 중심대로 혹은 성인 중심적 차원에서 활동을 강요하는 강요성 혹은 지나친 간섭(intrusiveness), 영아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거나 영아 활동에 비참여적, 수동적 행동을 의미하는 무관심과 방임(detachment), 영아의 발달과 성취를 위하여 교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발달적 자극(stimulation of development), 교사의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positive regard for the child), 교사의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negative regard for the child), 교사가 지루해 하고 활기가 없는 얼굴 표정과 몸짓을 의미하는 무표정한 태도(flatness)로 모두 8가지 영역을 평정한다. 각 영역은 1~4점의 리커트 척도에 근거하여 평정된다. 교사 행동 평정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긍정적 영역인 영아의 불편함에 대한 민감성, 만족함에 대한 반응성, 발달적 자극 및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는 Cronbach $\alpha=.78$ 이었고, 지나친 간섭, 방임,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및 무표정의 부정적 정서 영역에서는 Cronbach $\alpha=.76$ 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 서울, 대전, 대구 각 지역의 책임 연구자는 영아 보육 시설 두 곳을 방문하

여서 시설장과 주임교사에게 영아 보육 시설 평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체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체 평가의 어려움과 현장의 반응을 점검하였다. 또한 영아반을 방문하여 교사와 영아의 자유놀이 시간의 상호작용을 1시간 정도로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이 녹화된 것은 후에 각 지역의 평정자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평정자 훈련은 서울, 대전, 대구 지역 각 지역의 평정자 2명과 책임연구자 1명씩 총 9명이 서울에 모여서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 평정을 위한 훈련을 4회 가졌다. 먼저 미국의 NICHD(1992)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 평가 매뉴얼에 있는 교사행동 영역에 대하여 모든 연구원들이 미리 숙지하고 훈련용으로 녹화된 각 영역별 교사 행동의 전형적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연구원 및 평정자들의 의견을 교환, 조율하고 각 평정자들이 평정한 결과들을 비교, 논의하였다. 1차로 이러한 훈련을 거치고 다시 본 연구의 지역별 대상 시설의 영아교실에서 녹화된 테이프를 보면서 교사의 영역별 행동에 대하여 평정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9명의 평정자의 관찰 평정의 기준을 일치시켜 나갔다. 최종적으로 평정자 간의 평정 일치도는 88%이었다.

2) 본조사

본조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 보육 시설 46곳을 관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 평가지를 배부하고 평가가 끝나는 대로 회수하였다.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평가는 서울, 대전과 대구 각 지역별로 두 명의 평정자가 영아반을 방문하여서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을 평정하였다. 1회 방문 시에 10분씩 5회를 관찰하므로써 관찰 시간은 약 1시간을 소요하였고, 두 명의 평정자는 각각 평정하면서, 1회의 평정이 끝나는 대로 점수를 일치시켰다. 평정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인해 평정을 일치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각 지역의 모든 시설의 1차 관찰이 종료된 후에 다시 재방문하여 2차 관찰평가를 실시하였다. 관찰을 2차에 걸쳐서 수

행한 이유는 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기관별로 1차 관찰과 2차 관찰사이에는 약 1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별로 자체 평가된 평가지와 평정자에 의하여 관찰 평가된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자료가 SPSSWin 10.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Cronbach α 계수,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적률상관관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한국 영아 보육의 규정적 특성 실태

〈표 2〉에 지역에 따른 연령별 영아반의 인가 학급수, 실제 학급수, 인가 아동수 및 실제 아동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0~12개월 영아반은 서울, 대전, 대구 모두 인가 학급수 및 인가 아동수에 비하여 실제 학급수와 실제 아동수가 더 많이 재원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만 0세 영아의 보육 수요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0~12개월 영아반의 지역별 특징을 보면 대구가 서울·대전에

비하여 0~12개월 영아반 인가학급·아동과 실제학급·아동의 수가 적다. 만 1세와 만 2세 반은 인가학급수와 인가 아동수에 비하여 실제 학급수와 아동수가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이 연령의 영아보육 충족율이 56.8%에 불과하다는 보건복지부(2001)의 보고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 즉 실제 이용수가 인가수에 미달되는 것이 영아보육 수요자인 부모들이 영아보육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면서도 영아의 시설보육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거나 혹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는 이후 연구될 만한 문제이다.

〈표 3〉에는 연령별 영아반의 실제 교사 및 보조교사 수가 제시되어 있다. 교사 수는 서울의 실제 학급수에 비하여 보조교사로 인하여 교사수가 초과하는 것 이외에 각 지역의 실제 영아반 학급수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법의 만 0~1세 반의 1:5, 만 2세반의 1:7에 일치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서울의 0세 반을 제외한 대전과 대구에는 거의 보조교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교사 대 영아의 비율로 보면 대전과 대구에 비하여 서울 지역 영아보육의 여건이 더 수월함을 의미한다.

또 〈표 3〉에 연령 별 영아반 보육교사의 경력이 제시되어 있다. 세 지역 모두 어린 영아 반일수록 교사의 평균 연령과 경력이 높고, 영아 연령이 오를

〈표 2〉 지역별 영아보육 인가 및 실제 학급, 아동 수: 평균(시설 수)

연령	항목	서울	대전	대구	계
0~12개월	인가 학급수	1.45(11)	2.00(4)	1.00(2)	1.53(17)
	실제 학급수	1.70(10)	2.33(3)	1.50(2)	1.60(15)
	인가 아동수	6.64(11)	9.75(4)	5.00(2)	7.18(17)
	실제 아동수	7.20(10)	11.67(3)	6.50(2)	8.00(15)
만 1세	인가 학급수	2.00(15)	1.64(14)	1.40(10)	1.72(39)
	실제 학급수	1.43(14)	1.75(12)	1.38(8)	1.53(34)
	인가 아동수	11.13(15)	8.21(14)	7.30(10)	9.10(39)
	실제 아동수	8.07(14)	8.58(12)	6.75(8)	7.94(34)
만 2세	인가 학급수	2.35(17)	2.13(15)	1.90(10)	2.17(42)
	실제 학급수	1.93(15)	2.00(15)	2.10(10)	2.00(40)
	인가 아동수	17.18(17)	14.73(15)	16.11(9)	16.05(41)
	실제 아동수	14.20(15)	13.80(15)	18.89(9)	15.13(39)

〈표 3〉 지역별 영아 보육 교사, 보조교사, 연령 및 경력: 평균(시설 수)

연령	항목	서울	대전	대구	계
0~12개월	교사 수	2.00(10)	2.33(3)	1.50(2)	2.00(15)
	보조 교사 수	2.00(10)	.00(3)	.00(2)	.13(15)
	교사 대 영아비율	1 : 1.8	1 : 5.0	1 : 4.3	1 : 3.8
	교사 연령	34.75(8)	36.33(3)	30.00(1)	34.75(12)
	교사 경력	5.13(8)	9.00(3)	2.00(1)	5.83(12)
만 1세	교사 수	1.57(14)	1.75(12)	1.38(8)	1.59(34)
	보조 교사 수	.00(14)	.00(12)	.25(8)	.00(34)
	교사 대 영아비율	1 : 5.1	1 : 4.9	1 : 4.9	1 : 5.0
	교사 연령	33.92(13)	31.19(11)	31.29(7)	32.35(31)
	교사 경력	6.17(12)	5.00(11)	1.92(7)	4.75(30)
만 2세	교사 수	2.00(15)	2.00(15)	2.30(10)	2.08(40)
	보조 교사 수	.00(15)	.00(15)	.20(10)	.00(40)
	교사 대 영아비율	1 : 7.1	1 : 6.9	1 : 7.6	1 : 7.3
	교사 연령	29.86(14)	27.00(11)	28.40(10)	28.54(35)
	교사 경력	3.89(13)	4.50(12)	4.70(10)	4.33(35)

〈표 4〉 지역별 영아 보육 교사 월 평균 급여 및 교육정도: N(%)

항목		서울	대전	대구
영아반 교사 월평균 급여	61~70만원	1(5.9)	0(0.0)	1(7.7)
	71~80만원	1(5.9)	1(6.7)	0(0.0)
	81~90만원	1(5.9)	0(0.0)	0(0.0)
	91~100만원	5(29.4)	0(0.0)	2(15.4)
	100만원 이상	9(52.9)	14(93.3)	10(76.9)
	계	17(100.0)	15(100.0)	13(100.0)
영아반 교사 교육 정도	고졸	5(29.4)	1(7.1)	0(0.0)
	전문대졸	7(41.2)	6(42.9)	9(69.2)
	대졸	4(23.5)	6(42.9)	4(30.8)
	기타	1(5.9)	1(7.1)	0(0.0)
	계	17(100.0)	14(100.0)	13(100.0)

수록 교사의 평균 연령과 경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0세 반은 30대의 교사가, 영아 후기에는 20대의 교사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어린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일수록 생활 경험이 많고 자신의 자녀 양육 등의 실제 부모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의 보살핌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표 4〉에 영아반 교사의 월 평균 급여 및 교사의 교육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세 지역 모두 100만원

이상의 평균 급여가 대 다수이고 특히 대전지역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61~70만원의 수준이 서울 5.9%, 대전 0.0%, 대구 7.7%에서도 확인이 된다. 또한 영아반 교사의 교육 정도는 서울, 대전과 대구 모두 전문대졸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 대졸의 비율이 높다. 이는 최근 최보가와 문영경(2004)의 조사에서 영아반 교사의 학력평균이 14.11년으로 보고된 것으로 비교하면 영아보육교사의 평균적 학력은 전문대졸이 많은 것과 일치한다.

2. 한국 영아 보육의 질적 특성들의 상관관계

1) 자체평가에 의한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의 영역별 상관관계

〈표 5〉에 영아 보육 시설의 평가영역간에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5개의 영역들은 서로간 상관관계가 $r=.443\sim.773$ 으로 $p<.01$ 수준에서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중 물리적 환경과 건강관리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443으로 가장 낮고, 물리적 환경과 운영관리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773으로 가장 높았다. 이로서 영아 보육 시설의 질은 물리적 환경, 운영관리 등의 구조적(structural) 영역과 보육과정,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간의 질의 과정적(process) 영역은 서로간에 주요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영아 보육 시설 자체평가 영역간의 상관관계

영역	1	2	3	4	5
1 물리적 환경	1.000				
2 보육과정	.668**	1.000			
3 건강관리	.443**	.701**	1.000		
4 운영관리	.459**	.610**	.773**	1.000	
5 지원체계	.633**	.560**	.722**	.604**	1.000

** $p<.01$

2) 관찰 평가에 의한 교사-영아간 상호작용의 요인별 상관관계

〈표 6〉에는 교사-영아의 상호작용 평정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상호작용의 유형은 불편함에 대한 반응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성, 지나친 간섭, 발달적 자극,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이었다. 불편함에 대한 반응성과 상관관계가 결과된 요인들은 지나친 간섭을 제외하고 교사의 영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형이다. 불편함에 대한 반응성과 지나친 간섭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결과된 것은 영아의 불편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반응하는 가운데 교사 중심적인 관점에서 활동을 전이시키려 하거나 혹은 영아가 우는 상태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성과 발달적 자극,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결과되어 교사의 영아 중심적 행동과 언행은 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절하도록 사물이나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해주고 이것은 영아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간섭과 무관심 그리고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교사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영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교사의 행동과 태도는 영아와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거나 영아 활동에 수동적이고 혹은 관심을 나타낼 때에도 경직된 몸짓 혹은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관심은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및 무표정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영아와 유대관계를 갖지 않고 영아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응답

〈표 6〉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요인간의 상관관계

요인	1	2	3	4	5	6	7	8
1 불편함에 대한 반응성	1.000							
2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성	.458**	1.000						
3 지나친 간섭	.512**	-.254	1.000					
4 무관심(방임)	.071	-.652**	.563**	1.000				
5 발달적 자극	.565**	.614**	.153	-.309*	1.000			
6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	.569**	.515**	.291	-.048	.331*	1.000		
7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020	-.460**	.506**	.442**	-.173	-.236	1.000	
8 무표정한 태도	-.457**	-.738**	.209	.522**	-.621**	-.283	.521**	1.000

* $p<.05$, ** $p<.01$

하는 속도가 느린 교사는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혹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지루해 하고 활기 없는 얼굴표정과 몸짓과 목소리를 나타낸다.

발달적 자극과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서로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아의 발달, 성취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는 영아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하는 표시를 자주 한다.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무표정한 태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역시 영아에게 경직된 몸짓을 하거나 영아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가 부정적 단어와 톤을 사용하는 교사는 주로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지루해 하고 영아에게 냉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 유형 중 서로 간에 정적인 상관을 갖는 유형들은 대개 교사의 영아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반대로 부정적 상호작용 유형은 그들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교사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 태도는 어느 정도 일관되고 또한 교사행동의 유사한 양육행동 측면들은 상호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 평정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영역은, 불편함에 대한 반응성은 무표정한 태도와 부적 관계를 가졌다. 교사가 영아의 불만족한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교사는 무표정한 태도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성은 지나친 간섭, 무관심,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및 무표정한 태도와 부적 관계가 있어서 영아의 상태에 맞추고 이를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지표로 삼는 민감한 교사는 성인 중심적인 상호작용과는 거리가 멀고, 영아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나 무표정한 태도가 적다. 무관심은 발달적 자극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영아에 대하여 무관심한 교사는 영아의 발달과 성취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발달적 자극과 무표정한 태도는 서로 부적 관계로 관련되어 있어서 영아의 발달 및 성취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는 지루해 하거나 피곤한 표정 혹은 활기가 없는 표정과 몸짓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영아에 대한 긍정적

<표 7> 지역 별 영아보육 영역 평가 평균(표준편차) 과 F값

영역	서울	대전	대구	F 값
물리적 환경	3.53(.56)	3.56(.59)	3.67(.63)	.242
보육과정	3.93(.58)	3.95(.52)	3.96(.61)	.014
건강관리	4.06(.57)	4.05(.44)	4.11(.62)	.057
운영관리	3.87(.77) ^a	4.30(.49)	4.35(.48) ^b	2.89*
지원체계	3.44(.64)	3.59(.73)	3.77(.82)	.783

* $p < .05$

a, b는 집단간 $p = .05$ 에서 차이가 있음.

정서는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및 무표정한 태도와 부적 관계로 관련이 있다. 이는 교사가 영아에게 미소를 짓거나 함께 웃는 등의 영아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교사는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무표정한 태도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영아 교사가 영아와 상호작용의 다양한 요인들간의 부적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요인들과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과 부정적 상호작용 요인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3. 한국 영아 보육의 질적 수준과 지역 별 차

1) 자체 평가에 의한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표 7>에 영아보육의 5개 평가 영역에 대한 영역 별 평균과 이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세 지역 모두 5개 평가 영역 평균이 3.44~4.35로 분포되어 있어서 가장 낮은 영역도 보통의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최경애(2002)의 영아보육시설 평가지에 의하면 보통(3점)이면 기본지표를 모두 충족시키고 일반지표는 일부 충족시키거나 기본지표가 거의 충족되어 조금만 개선하면 되고 일반지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세 지역 영아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은 보통이상으로 볼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건강관리 영역이 4.05~4.11로 분포되어 있어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역이었고, 이 중 특히 약품·질병관리가 4.13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관리가 4.03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영아용 비상약품의 준비, 투약에 대한 보호자의 투약의뢰서 확인 등 최소한의 약품·투약관리 이상으로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 영아의 건강검

진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반면 건강관리 영역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안전관리 영역은 차량의 정기점검, 시설물, 출입구 및 창문에 대한 안전장치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운영관리 영역은 3.87~4.35로, 우수한 편이다. 운영관리 영역 중 소영역 평가에 있어서는 운영 및 평가체계는 4.26, 사무 및 재정관리는 4.12, 종사자관리는 4.05로 평정되었는데, 서울의 운영관리 소영역 평균이 대전·대구에 비하여 낮았다. 그 다음 보육과정은 3.93~3.96으로 평정되었다. 보육과정의 소영역인 보육목적·보육계획·평가는 3.94, 보육내용은 3.82, 일과운영은 3.77로 평정되어 우수한 편이다. 물리적 환경은 3.53~3.67로 분포하였는데, 환기·냉난방, 채광·조명, 급·배수·오물, 시설 및 자료관리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설비 및 기타시설 전체평점이 3.82로 가장 높았고, 보육활동 준비, 회의 등을 위한 교직원 업무공간과 교육자료 및 시청각매체 등의 교수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 업무시설 점수가 3.22로 가장 낮았다. 이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물리적, 복지적 지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원체계가 3.44~3.77로 평가되어서 질적으로 가장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5개 영역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지원체계는 가족이해·의사소통, 부모교육·참여·지원, 학부모 만족도, 지역사회자원 활용·협력 및 사회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족서비스(3.67)나 사회적 협력(3.58)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세부 평가 영역의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은 실외놀이 및 대근육시설의 평가가 2.62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4.26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 실외놀이 및 대근육시설의 평가는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서울지역의 물리적 환경, 즉 공간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의 대지 및 건물 임대료가 아주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쉽다. 대전은 물리적 환경영역 중 교직원 업무시설인 교직원의 준비, 회의 상담을 위한 업무공간 혹은 휴식 시설 등에서 3.30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운영관리 영역의 운영 및 평가체계와 사무 및 재정

관리 각각이 4.40으로 보육 시설 운영 지침의 준수, 보육아동 관리, 교직원 의사소통, 운영실태 평가, 문서·사무관리, 재무 관리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역시 교직원 업무시설이 3.2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과 대구는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구는 운영관리 영역 중 종사자 관리가 4.38로서 종사자 경력 인정, 보수, 승급, 교사교육 및 직무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에 따른 각 영역 평가의 평균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운영관리 영역에서 세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LSD사후 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서울과 대구의 운영관리 영역에 차이가 있어서 서울은 운영관리 평균이 3.87, 대구는 4.35로 평가되어서 서울에 비하여 대구 지역의 영아 보육 시설의 운영관리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2) 관찰 평가에 의한 교사-영아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표 8>에는 지역 별 영아 보육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균 및 F값이 제시되어 있다. 교사의 영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인 불편함에 대한 민감성,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성, 발달적 자극,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지역별 평균을 보면, 1.84~3.56으로 분포하여서 서울, 대전과 대구지역 모두 약간 그러함~대체로 그러함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사의 영아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인 지나친 간섭, 무관심(방임),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무표정의 평균은 1.01~2.32로 분포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음~약간 그러함으로 분포하였다.

각 상호작용 요인별로 지역간 차이를 보면, 불편함에 대한 민감성은 서울과 대전에 비하여 대구가 평균 3.56으로 가장 높은 민감성을 나타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성에서 세 지역간 차이는 없었으며 지나친 간섭에서 세 지역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전이 평균 1.22, 서울 1.66, 대구가 2.32로 세 지역 중 대구의 지나친 간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무관심에서도 세 지역들간에 차이가 있어서 대전 평균이 1.40, 서울 1.79, 대구가 2.26으로 대전의 무

〈표 8〉 지역 별 영아보육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평균(표준 편차)과 F값

상호작용	서울	대전	대구	F 값
불편함에 대한 민감성	2.33(.66) ^a	2.41(.29) ^a	3.56(.67) ^b	20.52***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성	2.53(.51)	2.75(.27)	2.60(.49)	1.08
지나친 간섭	1.66(.29) ^a	1.22(.20) ^b	2.32(.46) ^c	39.92***
무관심(방임)	1.79(.47) ^a	1.40(.32) ^b	2.26(.39) ^c	15.97***
발달적 자극	1.84(.57) ^a	2.51(.46) ^b	2.71(.53) ^b	11.90***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	2.87(.44) ^a	2.36(.27) ^b	2.95(.38) ^a	10.85***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	1.09(.18)	1.01(.15)	1.28(.66)	1.82
무표정한 태도	1.63(.36) ^a	1.12(.19) ^b	1.26(.52) ^b	8.12***

*** $p < .001$

a, b, c는 집단간 $p = .001$ 에서 차이가 있음.

관심이 가장 낮고 대구의 무관심이 가장 높았다.

발달적 자극에서는 서울과 대전·대구간에 차이가 있어서 대전과 대구는 2.51과 2.71로 평정되어 서울의 영아반 교사의 발달적 자극보다 높았다.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서울·대구와 대전간에 평균차이가 있어서 대구와 서울은 2.95, 2.87로 대전의 영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에 비하여 높았다. 영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없이 전혀 그렇지 않다 수준으로 평정되었다. 반면 무표정한 태도는 서울과 대전·대구간에 차이가 있어서, 대전과 대구의 평균은 1.12, 1.26으로 평정되었으나 서울은 1.63으로 평정되었다. 대전·대구에 비하여 서울의 무표정성이 높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따른 영아보육의 증가된 수요에 대한 지역별 영아보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실태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영아보육 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수준을

평가하여 질적 수준에 대하여 진단하고 지역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영아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 보육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요인별 질적 수준을 관찰 평정하여 그 수준을 알아보고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지역별 영아보육의 현황 및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영아기일지라도 연령별로 영아반 운영에서 차이가 있었다. 만 0세 반 인가 학습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인가 학습 수 및 아동 수에 비하여 실제 학습 수 및 아동 수가 많았는데 이는 영아보육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이는 0~1세의 보육 충족률이 14.2%에 그친다는 보건복지부(2001)의 보고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만 1세와 만 2세 반은 인가에 비하여 실제 학습 수 및 아동 수가 미달되었는데 이는 만 1세~2세의 보육 충족률이 56.8%인 것을 고려하면 의외이다. 이는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의 만족도 혹은 신뢰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추후조사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보육의 보조교사 활용은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한 1:5, 1:7의 교사대 영아 비율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좋은 비율이 아니며, 이에 따른 보조교사 활용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제 운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해 준다.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영아의 성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활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영아 교사는 어린 반일수록 나이가 많고 교사경력이 높았는데 이는 영아를 위하여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어린 연령일수록 교사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민감하고 유능해야 하며 영아의 빈번한 생리적, 본능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사의 능력을 위해서는 인격적 성숙을 비롯하여 자녀 양육 경험이나 영아 양육 및 보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아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은 100만원 이상이 다수이나 60만원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도

있었으며, 이 수준은 시설 및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보육의 책무와 노동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곳도 있음을 의미한다. 열악한 대우와 임금 수준은 교사의 이직률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영아의 보육 경험의 안정성(stability)을 해치기 때문에 향상되어야 할 현상이다. 이는 김신영(1998), 김애자와 최경희(200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장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함과,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유아교사를 기피하고 교사 이직률이 매년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을 제시한 것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따라서 영아 보육교사의 교육경력은 아직은 전문대졸이 많으나 점차 대졸의 비중이 커져서 영아보육 교사의 전문성이 더 확보됨과 동시에 학력증진에 수반된 임금상승과 사회적 인지도 상승 효과(김애자와 최경희, 2003; 허송연, 2001)로 이어져 이는 결국 교사의 이직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평가지와 관찰에 의해 각각 평가된 영아보육 질적 수준은 평가지평가와 관찰평가 모두에 있어 하위영역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의 신뢰도를 말해주었다. 평가지평가는 자체평가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설평가로서, 자체평가에 의하여 수행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우수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보육 시설에 대한 질적 수준의 평가는 그 동안 한국 영아보육 현장에서 별로 실시되지 못한 연구로서, 순수한 국내의 자료에 근거하여 개발된 영아보육 시설 평가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체평가에 의한 영아보육 시설의 환경적, 운영적, 교육적 상황은 서로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998년 이순형의 영아기 프로그램이 영양을 제외하고 건강과 안전, 학습환경구성 등에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영아보육의 수준이 그 동안의 현장종사자, 정책결정자, 학계의 노력 등에 의하여 많이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평가지를 사

용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건강관리영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지원체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사회에서 영아의 다수 보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에 비하여 시작된 시기나 활성화가 요구되기 시작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 및 영양관리에서 가장 높은 질적 수준평가가 결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모교육,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지원체계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앞으로의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영아보육 교사의 상호작용의 요인별 질적 수준의 관찰평가는 다수보육 상황에서의 영아의 경험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육교사의 보육행동 유형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는 긍정적 보육행동과 부정적 보육행동은 각 유형 요인별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영아에 대하여 긍정적 보육행동을 하는 교사는 다른 영역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이고, 부정적 보육행동을 하는 교사는 다른 영역에서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아교사는 긍정적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약간 그러함' ~ '대체로 그러함'으로 평가되었고 부정적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 ~ '약간 그러함'으로 평정되었다. 어린 영아의 다수 보육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도 많고 부모의 신뢰도 높지 않으나 현장의 교사들은 영아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에게 발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극을 주고 영아를 사랑하며 영아중심적인 보육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1명에 비하여 돌보아야 하는 영아의 수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방치하거나, 무관심, 영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지루해 하는 태도 혹은 성인 중심적인 행동은 '거의 그렇지 않음'의 수준으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은 전국적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있어서 세 지역의 기관들에서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나, 대체로 한국영아교사들은 성인중심적이기 보다는 영아중심적인 보육행동을 갖는 것을 반영하였다. 세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지역간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가지 평가에 있어서 인구밀도가 높고 임대료가 비싼 서울은 대전과 대구보다 공간과 관련된 물리적 시설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전과 대구는 교직원과 관련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수가 지역차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지역차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아보육시설이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운영된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실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영아보육 실태에 있어서 규정적 변인 중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연령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 보조교사 활용, 교사임금 등으로 수렴된다. 특히 0-12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의 수요가 모자라며 현장에서 보조교사의 활용이 부족하고 일부 교사들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 한국영아보육이 효율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비자 중심의 보육정책과 함께 제정의 확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체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영아보육 시설의 환경적, 운영적, 교육적 상황은 서로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또한 영아보육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한국의 영아교사들은 비교적 영아중심적인 보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이 되는 것은 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 특성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아교사들이 이러한 보육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아교사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관련자들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의 결과에서 규정적 측면(예, 임금수준, 근무 여건 등)이나 자체평가에 의한 시설의 수준(예,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지역적 편차 없이 영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영아보육 시설이 부모교육,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지원체계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영아보육은 너와 나의 차원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임을 유념하고, 영아보육에 대한 사회적으로 열린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시설장,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등 관련자들간의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영(1998).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업적인 문제 측정도구 타당성 분석. *교육학연구*, 37(4), 225-253.
- 김승권(2000).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 대책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애자, 최경희(2003). 영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업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 *영유아보육학*, 35, 77-100.
- 박혜원(2000). 영아 보육시설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백경숙, 변미희(2002). 보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1, 135-152
- 보건복지부(2001, 2002).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보도 자료.
- 양옥승(2000).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1(4), 177-196.
- 양연숙, 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 이명조(2001).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실태 분석 연구. *아동학회지*, 22(3), 287-308.

- 이순형(1998). 보육시설의 환경 및 운영 평가와 정책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8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82-300.
- 이순형, 이옥경(2000). 한국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 아동학회지, 21(1), 121-140.
- 이 옥(2000).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에 따른 평가항목 개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21, 11-37.
- 조복희, 이 옥, 이진숙, 한유미(2003). 지역사회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학부모 인식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5, 259-282.
- 지성애, 김영옥(2003). 논어촌 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32, 247-273.
- 지성애, 박희숙(2000). 도시와 농어촌 보육시설의 부모만족도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23, 25-42.
- 최경애(2002). 영아보육시설 평가기준 타당화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보가, 문영경(2004).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대한가정학회지, 42(1), 39-51.
- 최일섭(1998). 이용자(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8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82-300.
- 충청남도(1997). 충청남도 취업모의 보육요구 및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 표갑수, 이재양(2003).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31, 383-4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개인 탁아모 파견업체 이용실태 조사연구.
- 허송연(2001).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조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tch, J. A. (1995). *Qualitative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ettings*. Westport, CT: Praeger.
- Howes, C. (1987). Social competency with peers: Contributions from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155-167.
- _____ (1990). Can age of entry into child care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92-303.
- Howes, C., & Hamilton, C. E. (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5-32.
- Howes, C., &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 Howes, C., Rodning, C., Galluzzo, D.C., & Myers, L. (1988). Attachment and child care: Relationships with mother and caregiv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403-416.
- Kotulak (1993). "Unlocking the Mind" Chicago Tribune.
- McCartney, K. (1984).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McCartney, K., Scarr, S., Phillips, D., Grajek, S., & Schwarz, J.C. (1982).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care center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In E.F. Zigler & E.W. Gordon (Eds.), *Daycare: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Auburn House.
- NAEYC (1990). What are the benefits of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programs?
- NICHD (1992). *Manual of Infant Qualitative Rating Scales*.
- Whitebook, M., Howes, C., & Phillips, D. (1989). *Who Cares?: Child Care Teachers and the Quality of Care in America* (Executive summary, National Child Care Staffing Study). Oakland, CA: Child Care Employee Project.
- Zaslow, M.J. (1991). Variation in child car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2, 125-138.

(2004년 2월 26일 접수, 2004년 5월 7일 채택)